



TEXTILE FASHION TREND ISSUE

DYETEC REVIEW 다이텍섬유리뷰

FASHION

AI로 패션 화보까지 척척, 혁신 이끄는 패션·뷰티업계

AI, 패션·뷰티업계 주요 혁신 요소

특히 뷰티업계는 AI 스타트업에 인수할 정도로 연구개발, 생산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에 AI를 접목시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패션업계는 AI를 활용한 소비자 맞춤형 스타일링 추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AI 큐레이션을 활용해 소비자 검색한 제품에 유사한 이미지를 추천하고, 개인화된 스타일링을 제안해 소비자 쇼핑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AI 큐레이션을 통해 매출 비중이 10%를 초과했으며, 올해도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 관계자는 "AI를 접목해 소비자에게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며 "올해 사업운영 및 상품 서비스에 AI 기반 기술 활용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9 TEXTILE FASHION ISSUE

FASHION TECH

스튜디오랩, '젠시 테크 포럼' 성료

AI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혁신 전략 모색



생성 서비스와 사진 촬영 자동패션 브랜드를 위한 AI 기반 상세페이지 자동 화 로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패션 테크 스타트업 스튜디오랩(대표 강성훈)이 개최한 '젠시 테크 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섬유산업연합회 2층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150개 이상의 패션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AI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혁신 전략을 모색했다. 참가자들은 AI 도입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고, 업계 전문가 및 참가자 간의 활발한 네트워킹이 이루어졌다.

특히 스튜디오랩의 AI 기반 패션 상세페이지 자동 생성 서비스 '젠시(GENCY)'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시연하여 참석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으며, 부스에서는 참석자들은 직접 본인들의 제품을 활용해 상세페이지를 생성하는 체험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불과 15초 만에 완성되는 상세페이지의 속도와 품질에 놀라움을 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스튜디오랩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드림의 룩북 생성 솔루션 '드림아트', 미타운의 패션 제품 3D 모델링 자동화 솔루션 '이보바'도 함께 소개되었다.

또한, 고태웅 디자이너와 전 자라코리아 대표인 이봉진 XYZ플러스 대표, 그리고 스티치잇 백찬 대표가 특별 연사로 참여해 패션 업계의 AI 기술 활용과 미래 트렌드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섬유산업연합회와 서울경제진흥원(SBA)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패션 업계의 AI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FASHION

"섬유패션도시 명성 회복" 3000억원 투입 나선 대구시

'대구 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 추진 계획 발표

대구시는 미래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대구 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35년까지 ▲테크(Tech) 융합 소재 육성(1,000억 원) ▲순환경제·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 고도화(1,100억 원) ▲글로벌 브랜드 구축 및 비즈니스 활성화(400억 원) ▲융복합형 핵심 인재 양성(500억 원)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생태적합성 의류용 섬유, UAM 핵심부품용 섬유 등 미래 핵심산업과 융합한 테크 융합 소재 개발을 지속한다. 또한 AI 기반 디지털 제조 공정을 도입하고 국제행사 및 연계한 섬유패션 쇼피ング몰을 개최하는 등 10대 중점사업과 23대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구의 5대 미래 신산업(ABB·로봇·반도체·미래모빌리티·헬스케어)과 섬유패션산업(Textile)의 융합(5+T)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과거 '아시아의 밀라노'로 불리며 한국 경제 성장을 주도했으나, 1990년대 중국산 저가 섬유 공세와 외환위기로 산업이 쇠퇴했다. 현재 산업 패러다임이 친환경·디지털 전환산업용 섬유로 전환됨에 따라, 대구시는 저부가 섬유 중심의 기존 산업구조를 바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35년까지 ▲5+T 핵심 선도기업(매출 500억 원 이상) 25개사 육성 ▲섬유패션산업 생산액 10조 원 달성 ▲5+T 융합산업 수출액 30억 달러 달성 ▲테크 리딩 인재 1,000명 양성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섬유산업은 우리나라 근대화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며 "침체한 지역 섬유산업을 첨단산업으로 전환해 재도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FASHION TECH

패션·유통 AI 솔루션, 해외 진출로 돌파구 찾는다

최근 패션 AI 솔루션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소비재 시장 위축과 투자 시장 경쟁 속에서 CRM, IP, 3D 등 생생형·마테크 AI 솔루션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K 콘텐츠 호황과 글로벌 AI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일본 등 해외 시장이 기획의 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시장은 AI 성장 속도가 더딘 반면 K패션·뷰티의 수요가 높아 진입 장벽이 낮다는 평가다. AI CRM 솔루션 기업 채널톡은 일본 아다스리아 등 4,000여 개 브랜드를 고객사로 확보하며 연간 반복 매출(ARR) 50억 원을 기록, 올해 두 배 성장을 목표로 한다. 플래티어는 일본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IT 기업과 제휴해 AI 마테크 솔루션 '그루비(groobee)'와 이커머스 솔루션 '엑스투비(X2BEE)'의 현지화를 추진 중이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출범한 기업도 있다. 마크비전은 미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AI 기반 브랜드 보호 솔루션 '마크AI'를 통해 180개국에서 위조 상품을 탐지·제거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옴니어스는 AI 기반 가상 착장 서비스 '벨라-1.0 프리뷰(벨라)'를 런칭, 북미·유럽·APAC 등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 리콘랩스는 영상·텍스트·스케치를 활용한 AI 3D 모델링 솔루션 '3D프레스'를 개발, 수천 장의 이미지 없이도 디자이너 의도를 반영한 3D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유저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AI 솔루션 기업들은 국내 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AI 트렌드에 맞춰 해외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FASHION

한국패션산업협회, 2025년 글로벌 패션업계 10가지 핵심 테마 제시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멀티 플레이 확보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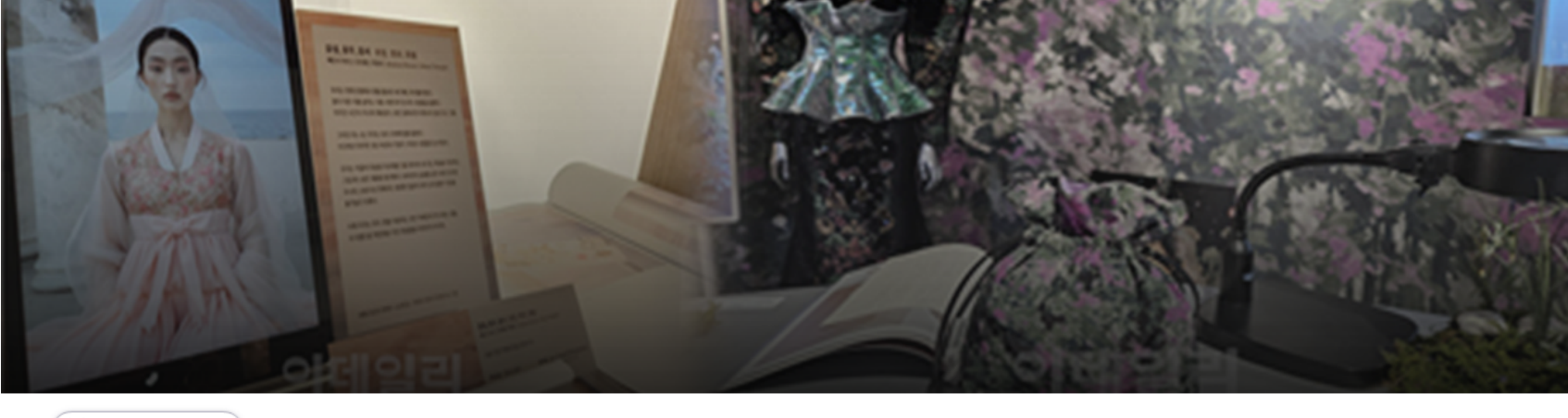
한국패션산업협회(회장 성래은, 이하 '협회')는 2월 6일 영원무역 명동빌딩에서 '2025 글로벌 패션 포럼'을 개최했다. 협회 회원사 및 패션업계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패션, 전방위적 도전(Challenges at Every Turn)'을 주제로 글로벌 패션 산업의 변화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 컨설팅 그룹 맥킨지앤컴퍼니(이하 '맥킨지') 강영훈 파트너는 'The State of Fashion 2025'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제, 소비자 변화, 패션 시스템의 3개 섹션에서 2025년 글로벌 패션업계 10가지 핵심 테마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글로벌 패션 무역 구도 재편 ▲아시아의 새로운 성장동력 ▲새로운 검색방식 ▲실버 소비자 ▲가성비 소비 ▲매장 경험 차별화 및 직원 역할 강조 ▲패션 플랫폼 혁신 ▲스포츠웨어 경쟁 심화 ▲재고 효율성 ▲지속가능성 공동 추진 등을 제시했다.

강영훈 파트너는 "국내 섬유패션기업이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트렌드를 반영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멀티 플레이 확보 등 브랜드 재정비를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소싱 다각화의 일환으로 인도의 부에 주목했다. 인도의 중산층 규모는 미국과 서유럽의 중산층 인구를 합친 것보다 크며, 인구 증가와 초고액 자산가들의 등장으로 패션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인도의 대표적인 이커머스 플랫폼 '민트라(Myntra)'의 빠른 성장과 데카트론, 망고 등의 브랜드가 인도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한 사례도 소개했다.

아울러 AI 기술 도입과 실버 세대 공략이 패션산업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FASHION TECH

북촌에 뜬 패션쇼장 "AI로 가상 화보도 만들어요"

LX하우시스가 서울 북촌에서 '2025 LX하우시스 트렌드십 전시'를 열어 자사 벽지와 바닥재 패턴을 패션과 결합한 체험형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쌍꺼풀 없는 눈에 양쪽으로 곱게 넘긴 쪽머리를 한 동양풍 여성. LX하우시스의 팝업 디자인 전시 행사에 등장한 인공지능(AI) 모델이다. 특히 이 동양풍 여성의 느낌을 살린 AI 모델로 다양한 콘셉트의 패션 화보를 찍고 이를 활용한 체험형 패션 화보 코너까지 구성했다. 이를 통해 전시의 일관성을 높이고 건자 제에도 신기술을 뽐낼 수 있다는 트렌디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동양풍 AI 모델을 활용한 패션 화보와 체험형 코너도 운영된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우주를 모티브로 한 '코스모스' 테마 공간이 펼쳐지며, 보라색과 검은색 패턴의 벽지와 같은 디자인의 의상을 입은 마네킹, AI 모델 화보가 자리하고 있다. LX하우시스는 우주 산업의 확장성을 반영해 건자제 디자인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왼쪽 벽에는 같은 얼굴의 AI 모델이 분홍색 꽃무늬 한복을 입고 조선시대 해면서 의녀에서 현대 치유사로 변신한 모습을 담았다. '윤설'(눈), '윤우'(비), '윤서'(글)라는 캐릭터를 부여하고, 전통적 공간과 나무 향기를 더해 조선시대 분위기를 강조했다. 2층에는 '나만의 패션 화보' 체험 공간이 있다. 원하는 콘셉트를 선택하고 얼굴을 촬영하면 AI가 이를 화보 이미지로 변형해 AI 모델과 같은 느낌으로 만든다.

또한, 3가지 콘셉트로 꾸민 VR 공간도 제공된다. 관람객은 조이스틱으로 가상 주먹을 이동하며 벽지, 바닥재와 어울리는 인테리어를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건자제 디자인을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도록 기획되었으며, 브랜드의 일상 속 확산을 목표로 한다.

기사 및 사진 출처

- 뉴데일리경제, AI로 패션 화보까지 척척, 혁신 이끄는 패션·뷰티업계, 2025년 03월 06일
- 아태일보, 스튜디오랩, '젠시 테크 포럼' 성료, 25년 03월 18일
- 중앙일보, "섬유패션도시 명성 회복" 3000억원 투입 나선 대구시
- 아태일보, 패션 및 유통 AI 솔루션, 해외 진출로 돌파구 찾는다, 25년 03월 06일
- 한국섬유신문, 한국패션산업협회, 2025년 글로벌 패션업계 10가지 핵심 테마 제시, 25년 02월 07일
- 이데일리, 북촌에 뜬 패션쇼장 "AI로 가상 화보도 만들어요", 25년 03월 17일

FABRIC DIVE CONTACT

문의 : 다이텍연구원 데이터융합연구센터

TEL : 053-350-3744, 3908 EMAIL : fabricdive@dyetec.or.kr



JOIN US